

전국노동자대회 참여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자! - 노동의 양극화 해소, 적폐청산은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으로...

“사흘 밤이나 잠 안 오는 주사를 맞고 일을 해 눈도 보이지 않고 손도 마음대로 펴지지 않는다.”

이는 전태일이 재단사로 일을 하던 당시 평화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대 성장기의 어린 여공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주말도 없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의 고된 노동을 견디다가, 몇 년 동안 번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들여도 고치기 어려운 병만 얻고 거리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일도 고됐지만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것은 이러한 여공들의 참혹한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전태일은 열악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재단사 친목회 조직, 노동실태 설문조사, 진정서 제출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사업주의 횡포와 근로감독관의 멸시로 돌아왔고, 전태일은 이에 항거하여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22세의 젊은이를 불살랐습니다.

그의 희생 이후 이제껏 아무도 차마 입에 올리지 못 했던 ‘노동자’나 ‘노동운동’ 같은 말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죽음은 노동현실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노동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대통령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국정목표”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이는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화형식이 행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문구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인간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선언이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비인간적인 것들과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우리가 잊어선 안 될 귀중한 정신적 자산입니다.

과연 현재 발전현장은 어떠한가요? 오죽하면 국감장에서 “정규직 안 해도 좋으니 더 이상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외치는 모습,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발전현장의 현주소입니다.

11월 10일(토) 오후 3시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하여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적폐청산으로 더욱더 나아가갑시다. 발전노동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법원,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 전액 산정해야...

대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 중 <최소공통분> 이외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잔여장려금>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 사건 잔여장려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개인별로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의 전체 금액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하였다.

이에 발전노조는 박근혜정권 시절, 정권과 사측의 강압에 의해 축소 지급된 퇴직금(퇴직,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전환 직원)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공문(‘18.10.23)을 발전회사에 발송하였다.

퇴직금 차액 청구소송 승소

통상임금 변동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지난 10월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발전노조가 2015년 제기한 퇴직금 차액청구소송에서 “기본상여금, 장려금(기준임금의 200%),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6631)

한국동서발전은 그동안 지급한 퇴직금(퇴직연금)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동서노조와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서 성질상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적 감독 작용에 해당할 뿐이고, 위 지침이 단체교섭 상대방인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강제력 있는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에 참여한 발전노조 동서발전본부 조합원 96명은 총 596,687,048원을 지급받게 된다.

※ 퇴직금 차액청구소송은 2015년 발전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퇴직연금) 차액도 지급해야 하나 한국동서발전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2015년 추가 진행한 것으로, 소송 3년 만인 지난 2018년 10월 1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김원창 열사정신계승!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 촉구! 총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석

10/27(토) 청와대 앞과 지역별로 개최된 결의대회는 자회사 전환을 막고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11월 총파업 승리를 결의했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집중상경으로 치러진 청와대 사랑채 앞 결의대회는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단식농성을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다 10월

20일 숨진 고 김원창 열사(울산항만공사지회장)의 뜻을 기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자회사 전환 중단을 촉구했다.